

회복의 책인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의
중심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점 -
주님의 회복 안에서의
합당하고도 적절한 인도 직분

6/5 월

마 20:25-28

25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말씀하셨다.
“이방인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.

26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.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하고,

27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.

28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,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입니다.”

마 23:10-12

10 또한 지도자라 불리지도 마십시오. 여러분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, 곧 그리스도이십니다.

11 여러분 중에 가장 큰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.

12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,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.

벧전 5:1-3

1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, 나는 같은 장로로서,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, 장차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유합니다.

2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십시오.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,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,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,

3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위에 군림하듯 하지 말고, 양 떼의 본이 되십시오.

6/6 화

딤후 1:3-4

3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,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습니다.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

하고,

4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.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.

행 2:42

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, 떡을 떤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.

살후 2:13

13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들, 우리는 여러분에 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셔서, 그 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.

고후 4:1

1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받았으니,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.

엡 4:3-6

3 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.

4 몸이 하나요,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.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시다.

5 주님도 한 분이시요, 믿음도 하나요, 침례도 하나입니다.

6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,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.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,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,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.

6/7 수

고후 13:10

10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될 때,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엄하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 이 권위는 사람들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.

고전 4:17

17 이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.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생활 방식,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.

살후 3:9, 12, 14

9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, 우리 자신이 여러분의 본이 되어,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.

12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권유합니다. “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도록 하십시오.”

14 누구든지 이 편지에 적어 보내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, 그 사람을 기억해 두고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. 그렇게 하여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십시오.

행 2:42

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, 떡을 떤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.

딤후 3:10

10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실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긴밀히 따랐으며,

6/8 목

행 26:19

19 아그립바왕이시여,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,

엡 3:2-4, 8-9

2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,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.

3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계시로 나에게 알려 주셨습니다.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.

4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 보면,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.

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,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

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,

잠 29:18

18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제한을 벗어던지나 율법을 지키는 이는 행복하다.

딤후 3:15

15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,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

것입니다.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,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.

6/9 금

엡 4:3-4
3 화평의 때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.
4 몸이 하나요,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.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.

골 3:10-11
10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.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.

11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, 할례자와 무할례자나, 야만인이나, 스कु디아인이나, 노예나, 자유인이 없습니다.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.

엡 4:15-16
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,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.

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,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.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.

시 119:105
105 Ǿ (눈)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요 제 길의 빛입니다.

고전 4:1-2
1 이와 같이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들로,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청지기들로 여겨야 합니다.
2 여기에서 청지기들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.

6/10 토

느 8:2-3
2 일곱째 달 초하룻날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회중, 곧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이 앞에 가져왔다.
3 그는 ‘물 문’ 앞 광장에서, 동이 틀 때부터 한낮까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

앞에서 그것을 낭독하였다. 백성은 모두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.

눅 10:1
1 이런 일들 후에, 주님께서 다른 칠십 명을 임명하시고, 자신이 가려고 하시던 모든 동네와 모든 장소로 둘씩 둘씩 앞서 보내시며

롬 12:5
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,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.

고전 12:24
24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.

엡 4:11-12
11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,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,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,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.

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,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.

6/11 주일

느 8:1-12
1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‘물 문’ 앞 광장에 모였다.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요청하였다.

2 일곱째 달 초하룻날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회중, 곧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이 앞에 가져왔다.

3 그는 ‘물 문’ 앞 광장에서, 동이 틀 때부터 한낮까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 앞에서 그것을 낭독하였다. 백성은 모두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.

4 율법학자 에스라가 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나무 단상에 섰는데, 그 오른쪽으로는 맛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서고, 그 왼쪽으로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므술람이 섰다.

5 에스라가 (온 백성보다 높이 있어)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책을 폈다. 그가 책을 펴자, 온 백성이 일어섰다.

6 에스라가 여호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, 온 백성은 모두 손을 들어 “아멘, 아멘.” 하며

응답하였다. 그리고 그들은 머리를 숙여 절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.

7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인들 또한 백성이 율법을 이해하도록 도왔으며, 백성은 제자리에 서 있었다.

8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해석하고 뜻을 밝혀 주었기 때문에 백성은 읽어 준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.

9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인 에스라와 백성의 이해를 도운 레위인들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. “오늘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십시오.”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기 때문이다.

10 그때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. “여러분은 가서, 기름진 것을 먹고 단 포도주를 마시며,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이에게 몫을 보내 주십시오.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입니다. 슬퍼하지 마십시오.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.”

11 그리하여 레위인들이 온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하였다. “조용히 하십시오.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.”

12 온 백성은 저마다 가서 먹고 마시고 몫을 보내 주며 크게 기뻐하였는데,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이다.

찬송: 840 주여 나를 내 자아와 육에서 (中:606)

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

1 단계-순차적 연구
로마서 8:28-39
로마서 라이프 스타디, 20-21 장

2 단계-주제별 연구
The Old Man Crucified and Buried with Christ
Scripture: 로마서 6:1-5

Assigned Reading: *Life-study of Romans*, msgs. 11, 34

Supplemental Reading: *Christ and the Cross*, ch. 13
Hymn: 482

churchinnyc.org/bible-study

The Church in New York City
churchinnyc.org